

제2세션 14:05~15:25

안채

커뮤니케이션·젠더연구회 /
미디어비평연구회 연합 세션

사회: 한희정(국민대)

1.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홍지아(경희대)

토론: 김수정(중앙대) · 이설희(용인대)

2. 젠더 갈라치기 구조에 나타난 남성다움과 정치

발표: 전해정(국민대)

토론: 문현영(육군사관학교) · 정사강(이화여대)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홍지아(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일, 방송3사 출구조사는 흥미로운 결과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20대 남성' 집단이 야당(국민의 힘) 후보에게 72.5%의 몰표를 몰아주어 야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중앙, 2021.4.8.)¹⁾ 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에 비해 동 세대 청년 여성들, 이른바 '이대녀'는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여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사전투표 지지율 44%)하는 한편,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기본소득당이나 여성의 당 등 소수정당에도 적지 않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격차가 다소 줄어든 채 2022년 3월 치루어진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분적으로 재현되었는데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윤석열 당시 야당 후보의 투표율은 58.7%, 여성은 33.8%로 차이를 보인다²⁾. 전통적으로 진보 정치의 지지층이었던 20대, 그 가운데서 '20대 남성' 집단이 보수정당인 야당 지지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여당의 집권 이후 심각해진 취업난, 거둬들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 LH 사태 등을 목격한 청년 세대의 박탈감과 분노가 집권 여당 심판으로 표출되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또한 애초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여당 지사체장들의 성폭력 혐의였음도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야당의 보궐선거 승리 이후 이루어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2021.4.12.)에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 힘 선대위 뉴미디어본부장은 집권 여당이 남성을 역차별하고 여성의 이익에 집중하는 페미니즘 정책을 펼친 것이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의 20대 남성들은 또래 여성보다 사회, 가정, 국가로부터 특혜나 우대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여성을 성차별로 피해받는 사회적 약자로 지목하며 남성을 역차별하는 페미니즘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선거 당일 조선일보 또한 '20대 자녀들은 말이지'라는 제하의 기사(조선일보,

* 이 논문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다루며 미완성 상태입니다. 인용을 금합니다.

1) 뒤편 '이남자', 차에 기운 '이여자'. 文정부서 갈라진 20대(중앙, 2021.4.8.)

2) 20대 표심 확연히 갈렸다..이대남 尹 58.7%, 이대녀 李 58.0%(한국, 2022.3.9.)

2021.4.7.)에서 20대 남성들의 지지로 선거에 이길 수 있었음을 강조하는 이 선대위 뉴미디어본부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을 정부 여당의 페미니즘 정책으로 분석하는 정치적 주장에 힘을 실는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격인 2021년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 집단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유력한 캐스팅 보트로 분석된 이후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권은 20대 남성의 표심 공략을 선거의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여성 징병제, 군가산점제 부활과 취업과 승진의 균 복무자 우대 방안 등 20대 남성을 의식한 정책을 제안, 발의³⁾하는 한편(중앙, 2021.4.16.) 야당 대선 후보들은 주요 선거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제시한다(조선, 2021.7.7.)⁴⁾ 여기에서 주위길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0대 남성을 향한 정치권의 구애가 분주해지는 것과 함께 '젠더갈등'이 한국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는 현상이다.

기사 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Bigkinds.or.kr)에서 '젠더갈등(젠더 갈등)'을 키워드로 주요 보수언론인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기사를 검색하면 2016년까지 한 자리 수에 불과하던 기사의 양이 2018년을 기점으로 두 자리 수로 증가하며 2020년 52개에서 2021년 388개로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⁵⁾. 좀 더 대중적인 용어인 '남녀갈등(남녀 갈등)'으로 검색한 경우에도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기사의 수가 2015년 176개, 2017년 102개, 2018년 212개, 2019년 209개, 2020년 153개를 거쳐 2021년 358개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이후 양적 증가를 보인 젠더갈등, 남녀갈등 기사의 연관어를 살펴보면 젠더(남녀)갈등의 동기가 되는 사건들, 예를 들어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018년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유출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대응 방식에 항의하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2019 이수역 폭행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된다. 젠더갈등(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남녀갈등)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2010년 중반부터 확장된 젠더갈등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중장년 세대보다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트위터 등 SNS 공간에서 20대 등 젊은 세대들에 의해 주도되는 남녀의 대립 양상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이라는 특정 연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사의 수는 2015년 이후 언론이 꾸준히 생산해온 젠더갈등이라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담론이 대통령 선거라는 정당의 명운이 걸린 정치적 시공간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활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젠더갈등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주요 갈등 담론으로 부각한 2021년에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들이 해당담론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젠더갈등을 호명

3)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남녀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한다(與의 '이남자'구애.. '여자도 의무 군사훈련을'(조선, 2021.4.19.).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 제도입과 공기업 승진 평가에 균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지원법을 발의한다('이남자' 마음 돌려라..與, 군 가산점 부활'(조선, 2021.4.27.)

4) '유승민-하태경 "여성가족부 폐지"..2030 남성 표심 잡기'(조선, 2021.7.7.)

5) 좀 더 구체적으로 1990년 1개, 1995년 1개, 2014년 2개, 2016년 6개로 한자리 수를 유지하던 기사의 수는 2018년 56개, 2019년 126개, 2020년 52개, 2021년 388개에 이른다.

할 때 갈등의 주체와 원인으로 어느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하는지, 젠더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비판하는 이른바 담론 elite로 누구의 목소리를 소개하는지, 젠더 갈등에 대한 보도에서 적시되는 젠더갈등의 내용은 무엇인지, 젠더 갈등에 대한 보도는 갈등의 증계와 대안제시,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 이루어지는지, 또한 갈등해결의 방안으로 어떠한 사회적 행동을 제안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간의 연구들은 정치적 진보를 지향하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그리고 보수 언론으로 구분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젠더 이슈에 대한 보도에서 가시적인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한다(이수범·송민호, 2020; 최이숙 외, 2020; 함승경 외, 2019; 홍지아, 2017).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의 집중도를 위해 대립되는 양 진영 언론사 기사의 비교보다는 한국 언론의 담론 생산을 주도하는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2. ‘젠더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빅데이터 분석업체 타파크로스가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언론기사, SNS, 인터넷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 데이터 총 5,401만 167건을 분석한 결과 젠더갈등이 73.6%로 정치갈등, 세대갈등, 직장 내 갈등을 넘어 우리사회의 가장 큰 갈등 이슈로 지목되었다(TAPACROSS, 2019).

돌이켜보면,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이 제한되고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대부분의 의사 결정권이 남성에게 주어져 온 근대 이후 성차별 없는 교육과 직업의 기회, 정치적 의사 결정권을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언제나 사회적 갈등으로 해석되어왔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성평등과 관련한 법의 제정과 집행 등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도전을 둘러싸고 남성과 여성의 이해가 대립되는 젠더 갈등의 사례는 다양하다(이재명, 2013).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과 대학입학과 취업의 기회, 유산 상속권 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는 때로는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서명운동이나 시위 등의 집단 행동, 법정 투쟁, 건물을 파손하고 불을 지르거나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던지는 무력 시위를 통해 힘겹게 쟁취되었다⁶⁾. 한국의 경우, 1916년 공창제 폐지, 해방 이후 조혼과 축첩 반대운동, 1957년 민법 개정 이후 시작된 가족법 개정 운동 등이 그 예에 해당되며 현대에 이르러는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정치와 고용 부문의 여성 참여 비율을 강제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2005년 호주제 폐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이재명, 2013).

2010년대 중반 이후 가시화된 현재의 젠더갈등은 20대라는 특정 세대에 집중된 세대갈등의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인용한 타파크로스의 빅데이터 검색결과를 살펴보면 젠더갈등의 원인이 된 사건으로 2015~2016년도에는 강남역 살인, 소라넷, 장동민 발언, 화장실 몰카가, 2017년~2018년에

6) 미국의 경우, 1971년 ‘유언장 집행인은 마땅한 남자가 없을 때만 여자가 맡을 수 있다’는 아이다호 주법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1974년 평등신용거래법으로 여성의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하버드대에 여성입학이 허가된 것이 1977년이며 1978년 임신한 여성의 퇴사를 금지하는 임신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진다. 무력 시위를 통해 여성의 권리가 쟁취된 대표적 사례로 여성 참정권 투쟁을 벌인 에멀린 팡크허스트와 서프러제트운동을 들 수 있다.

는 성범죄, 데이트 폭력, 흉대 누드모델, 82년생 김지영, 스토킹이 제시되었다. 갈등이 확산된 공간의 순위는 2015~2016년은 일베, 페이스북,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 2017년부터 2018년은 일베,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 페이스북, 텀블블로 나타나 젊은 층이 주도하는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 SNS 공간에서 남녀의 갈등이 극대화되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는 또한 2015~2016년과 비교해 2017~2018년 젠더갈등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증가했으며 워마드, 일베 등 특정 커뮤니티에서 상대 성에 대한 혐오발언이 과격해지면서 여성혐오 뿐 아니라 남성혐오에 대한 담론도 크게 증가되었다고 분석한다(TAPACROSS, 2019).

또한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민의 사회갈등 인식과 시사점’ 조사연구(중앙, 2021.11.12.)⁷⁾는 세대별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요소로 20대는 성별갈등, 30대는 부동산 정책, 40대는 진보, 보수의 갈등을 뽑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해 젠더갈등이 세대갈등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보여준다. 15세부터 39세의 청년 1만 101명을 설문조사한 여성가족부의 ‘청년의 생애 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보고서는 성차별 현실에 대한 2030 청년들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성의 74.5%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은 18.6%만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또한 응답 남성의 51.7%가 우리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결과를 소개해 성차별에 대한 청년 세대 남녀의 상반된 인식이 젠더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0년 글로벌리서치의 ‘젠더 정체성과 그에 따른 젠더 갈등’ 조사에서도 한국의 20대는 다른 세대보다 높은 젠더 정체성과 동시에 상대 성별 집단에 대해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김기동 외, 2021).

현재의 20대는 남녀가 동등한 대학교육의 혜택을 받은 첫 세대⁸⁾이며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무한 경쟁 속에서 대학입학으로 시작해 학점관리, 스펙쌓기, 취업에 걸쳐 소수의 승자가 되기 위해 그 어느 세대보다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남성의 월급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산업화 사회에서 남성은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며 사회의 의사결정자와 가정경제의 책임자로서 그에 합당한 권위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아버지 세대와 달리 현재의 20대 남성은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여성과 경쟁하며 결혼 후에도 일부 중산층을 제외하면 외벌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누리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현재 참여해진 20대 젠더 갈등의 원인을 기존의 세대가 누려온 남성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는 남성들과 기존의 여성혐오 문화와 성차별에 대항할 지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동 세대 여성들과의 필연적인 갈등으로 이해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는다(강희영·최유정, 2019; 권김현영, 2019; 류연규·김영미(2019); 최종숙, 2020).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도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20대 남성들이 드러내는 박탈감과 좌절, 그

7) 서울시민 10명 중 9명 ‘사회갈등 심각’..20대는 젠더, 30대는 부동산, 40대는 이념. 중앙, 2021.11.12

8) 2009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2.4%로 최초로 남성(81.6%)에게 앞선 이후, 2014년 남성 67.6%, 여성 74.6%, 2020년 여학생 81.4%, 남학생 76.4%로 여성의 대학진학율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높다.

리고 여성혐오의 관계를 논의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가 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이다. 스스로를 '루저'로 정체화하는 남성청년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자본을 빼앗아간다고 느끼는 탈북민, 이주민, 그리고 여성에 대한 혐오와 공격으로 분노를 표출된다는 분석은 앞서 젠더 갈등이 확산되는 제 1의 공간으로 주목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일베의 정체성이기도 하다(김학준, 2014; 강정석, 2013).

강정석(2013)은 일베 연대기라는 만화를 인용해 이들을 특징짓는 하나의 요소로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 혹은 적대에 대한 공감을 지목한다. 당연한 나의 몫을 내부의 타자에게 빼앗긴다는 박탈감, 나보다 자격이나 능력이 나은 것이 없는데도 더 받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을 공격하는 '상상된 착취'에 대한 분노가 일베의 경우 이주노동자, 북한, 전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을 향한다는 것이다. 윤보라(2013) 역시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무한경쟁에 직면한 청년들의 불안과 가부장 문화가 보장했던 권위있는 남성상과의 불일치가 여성을 타자화하고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을 표출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일베가 온라인 공간의 축적된 여성혐오 문화가 총집결되어 거칠게 발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일베의 게시물과 댓글 가운데 상당 수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을 성기로 치환해 부르거나 성적 모욕을 주는 내용으로 이는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또한 게시물과 댓글의 내용이 성차별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삭제한 절대적 평등의 잣대로 남성에게 역차별을 주장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다(엄진, 2016). 일베의 일관된 여성혐오는 페미니스트와 국가 페미니즘의 상징인 여가부에 대한 공격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이들이 보기에 이미 성차별이 해소된 현실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남성이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역차별 당한다는 믿음 때문이다(윤보라, 2013).

과거의 젠더갈등이 여성들을 차별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항의하며 성평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존 가부장적 질서의 거부감으로 해석되었다면 2010년대 이후 등장한 젠더갈등에 대해서는 특정 세대, 곧 20대 여성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교육과 취업에서 여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는 20대 남성들의 역차별 의식의 부딪힘으로 해석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의 페미니즘이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인권, 저항운동으로 평가받았다면 20대 남성의 박탈감에 집중하는 현재의 젠더갈등은 남성의 역차별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김기동 외, 2021, 김보명, 2019).

젠더갈등의 원인을 여성권익의 향상과 이에 상응하는 남성들의 박탈감에서 찾는 시각은 정치권에서도 발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국민주권 분과의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20대 여성을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 이기주의' 감성의 진보집단으로 이해한다(한겨레, 2019.2.27.).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요구하는 해화역 집회 등으로 정치세력화된 여성집단에 비해 20대 남성은 정부나 여당 어디에서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지원세력이 없다

고 인식하며 이러한 믿음은 정부의 성별할당제, 가산제 등 민주화이후 지속된 여성 친화적 정부정책에 기인한다고 내용도 담고 있다. 이후 2021년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에 분노한 이십대 남성들'이 야당 승리의 주역으로 특정되면서 '역차별 받는 이대남'이 젠더갈등의 주체로 소환되는 현상을 보인다.

〈시사IN〉과 한국리서치의 공동조사 연구 결과(천관울·정한울, 2020)는 젠더와 권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20대 남성들이 일관되게 자신들이 차별받는 약자라고 느끼는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20대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부여를 이루려는 운동'이 아닌(62.3%) '여성을 피해자로만 생각하며'(76.9%) '남녀평등보다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운동'으로 적대시(78.9%) 하며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거부감을 표시한다(84.2%). 또한 설문에 응한 20대 남성들은 한국에서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때문이 아니라(95.7%) 일로 성공하려는 노력이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며(78.3%) 지금 시대는 여성차별보다 남성차별이 더 심각하다는 것에 100%가 동의한다.

남녀 사이의 공정함과 차별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차이는 특히 사회생활에 진입하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두드러지는데 정치적 목소리를 획득하고 있는 여성과 달리 '사회적 인정투쟁'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일부 남성들의 좌절감이 페미니즘을 '노력없이 여성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담론'으로 간주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전효관, 2019). 남성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역차별 담론은 이러한 불만이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성', '편한 일만 하려는 여성' 등, 여성을 향한 폄하와 혐오의 언어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전효관, 2019). 남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젠더갈등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성차별을 있다고 전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오재호, 2021)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남성에게 역차별의 부담을 지우는 페미니즘이 젠더갈등의 토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류연구·김영미, 2019).

이에 비해 20대 여성은 이제껏 여성의 몫으로 요구되었던 결혼, 가족의 구성, 출산 등 사회적 재생산의 의무에 의문을 제기하고 스토킹, 불법 촬영, 성폭력 등 젠더화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정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20대 남성과는 상반된 젠더의식을 보인다(정성조, 2019). 과거 공적영역의 진출이 차단되고 전업주부로 남편의 경제력에 의지해 생활해야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결혼보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30대 남성들의 76.8%가 성공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결혼을 선택하는 것과 비교해 동년배 여성의 67.4%는 경제력이 있으면 비혼을 선택한다(이윤주, 2020). 또한 비혼의 이유로 집, 경제력의 부족 등 현실적 이유를 드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27%)하고, 결혼을 통해 가부장제 등 양성불평등 문화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싫어서(24.7%) 결혼을 꺼린다.

또한 현재의 20대 여성들은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을 통해 '여성들의 일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자각을 공유한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이다.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각성은 사회 각계에서 여성이 감내해

왔던 성희롱과 폭력을 고발하는 일련의 미투 운동과 2018년 홍대 남성누드 모델 사진 유출사건 당시 경찰의 이례적인 신속한 대처를 목격한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로 이어지며 새로운 페미니즘의 흐름을 주도했다(김해원 외, 2018). 또한 이들은 대표적 여성혐오 사이트인 일베가 생산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과 공격에 맞서 일베의 여성혐오적 언어공격을 성별을 바꿔 돌려주는 이른바 ‘미러링’ 전략을 구사한 ‘메갈리아’와 ‘워마드’의 창시와 활동을 이끈 세대이기도 하다.

일베의 여성혐오에 분노하며 성차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왜 정치적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또 다른 혐오로 규정되었으며 남성의 역차별 담론으로 연결되었는가? 젠더갈등 논쟁이 오가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과 게시글을 분석한 김강미 외(2019)의 연구는 여성혐오에 대항하기 위해 구사한 자극적 미러링이 여초 커뮤니티의 분열을 가져온 반면, 남초 커뮤니티는 남성혐오에 무력한 남성 이미지를 제시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극적 미러링을 페미니즘으로 호명하며 메갈리아와 워마드, 페미니즘을 동일시해 혐오의 주체로 부각시켰다고 분석한다.

남성혐오의 주체로 지목된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메갈리아와 워마드의 미러링에 대해서는 상반된 논의가 가능하다. 메갈리아와 워마드의 미러링을 여성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하며 원본(일베의 여성혐오 발언)이 사라진다면 이 또한 사라질, 말 그대로 미러링으로 보는 시선과 자극적 표현에 주목하며 여성혐오 못지않게 남성혐오도 그 자체로 나쁜 것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그것이다(김민정, 2021). 여성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러링을 이해하는 시각은 미러링의 원인인 여성혐오 발언의 문제점과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모욕하며 평가절하하는 성차별 문화의 문제점에 주목한다. 이에 비해 후자의 시각은 온라인 공간에서 오가는 남성과 여성혐오의 문제를 구조의 문제나 역사성의 문제로 보는 대신, 현재의 성별 간 갈등에 주목하는 특징을 가지며 나아가 ‘모든 혐오는 나쁘다’는 명분으로 남성혐오 발언을 허용하거나 주도하는 여성운동에 대한 반격을 정당화한다(손희정, 2018).

선행연구들은 역차별 당하는 남성의 억울함을 젠더갈등의 축으로 호명하는 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희롱, 취업률, 유리천장, 경력단절 등의 현실적 문제를 축소하는 한편 사회가 당면한 재생산 위기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정성조, 2019). 근대 이후 한국사회가 유지해온 ‘남성 가장’과 ‘여성 전업주부’의 이성에 가족 구조는 경제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남성 외벌이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도, 집을 사거나 노후를 책임질 수도 없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결혼이나 육아보다 스스로 번 돈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 1960년생 직장여성 가운데 6.17%가 아이를 낳지 않은 반면, 75년생 여성 직장인들은 21.9%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현실은 여성의 경제력과 출산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매일경제, 2022.1.23.)⁹⁾

이 시점에서 기존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규범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며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차별 당하는 20대 남

9) ‘누가 아이 안 낳는지 알려졌다’..70년생 직장인 여성 20% 무자녀. 매일경제, 2022.1.23. 서울대 황지수 교수 더 늦게, 더 적게, 아예 안 낳기:대한민국 최근 동일집단 별 출산추세 논문 인용

성의 억울함을 전면에 내세운젠더갈등 담론의 생산 현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젠더갈등 담론을 생산하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젠더갈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특정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논쟁과 서로의 성을 향한 공격, 다양한 논쟁에 대해 커뮤니티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 해당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민감한 특정 세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중장년 세대 시민들은 일베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존재와 이들이 구사하는 혐오성 언어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다. 이러니만큼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과 방식으로 젠더갈등에 대해 보도하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전효관(2019)은 2018년 12월 1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를 기점으로 유수 언론들이 20대 남성 청년들이 젠더 갈등 때문에 현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여성할당제, 여성친화기업 가산점 제도, 군대 문제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남성 청년들의 목소리 전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수언론들은 남성들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집중하며 남성들이 제도적 역차별로 지목하는 여성할당제 등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례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취재,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성차별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는데 50대 남성(386세대)들이 이를 방관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담론을 적극 수용하면서 20대 남성의 역차별 주장을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과 386남성들이 주축을 이루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연결짓는 보도 프레임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한다.

한국사회의 페미니즘 담론과 세대담론이 성별갈등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분석한 김수아(2019) 또한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주목 경쟁을 통한 미디어 보도양태가 성별갈등을 부추여 이를 상업적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페미니즘은 왜 남성을 혐오하나’와 같은 제목으로 페미니즘을 남성혐오와 연결시키며 여성을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로 지목하는 기사 작성 방식을 비판한다. 이 외에도 젠더갈등의 주체를 워마드로 지목하는 보수 정치인의 발언이나 온라인 사이트의 혐오성 게시물들을 맥락적 이해없이 보도함으로 워마드로 대표되는 한국 페미니즘이 남성을 혐오한다는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 또한 젠더갈등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김수아, 2018).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이나 개인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 관행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갈등의 중계자, 더 나아가 증폭자로 역할(김수아, 2019;2021, 최이숙 외, 2020)한다. 구조를 보지 않는 미디어의 보도가 젠더 불평등에 대한 사회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남녀갈등의 차원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다(정성조, 2019). 젠더 이슈에 있어 보수 언론은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주의 시각의 문제제기를 축소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젠더 갈등이 등장하게 된 원인보다 문제제기가 가져온 갈등 상황 자체를 문제점으로 보도하는 경

향이 있다는 지적(홍지아, 2017) 또한 젠더갈등에 대한 보수언론의 보도형태 분석에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미디어가 갈등의 존재 자체와 갈등상황을 중계하듯 보도하는 것이 아닌 갈등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공론의 장을 형성할 것을 주문한다. 사실확인보다 갈등보도에 주목하는 언론의 보도형태는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놓인 상황에 대한 분석,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현재 사회의 문제들을 연결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젠더갈등을 일으키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전효관, 2019). 특히 정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을 확장해야하는 정치권의 필요와 젠더갈등 담론 확산의 상관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보도형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연구방법과 연구질문

선행연구들은 정치적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는 언론사가 젠더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 보도 가치의 중요도 평가와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이수범·송민호, 2020; 최이숙 외, 2020; 함승경 외, 2019; 홍지아, 2017). 이 연구는 분석의 집중도를 위해 젠더갈등 담론이 확산된 2021년 한 해동안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생산하는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내용분석은 물질적이고 셀 수 있는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서는 생산자의 인식과 메시지에 담긴 구조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방법이다(Taylor, 2009 재인용). 특히 신문기사처럼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에서는 어휘, 문법, 문장구조의 분석을 통해 대상이나 사건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강조되는지를 살핌으로서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 신념, 이데올로기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이선민·이상길, 2015).

분석대상 기사의 모집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5년 이후 한국사회에 젠더갈등을 가져오는 대표적 사건과 이슈를 선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사건들과 여론조사 기관인 타바크로스과 국가미래연구원이 제시한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19 시대정신 보고서’에서 2015-2018년 남녀갈등 촉발 원인으로 제시된 주요 사건들을 참고하였다. 또한 기사검색 서비스 박카인즈에서 2015년 이후 젠더갈등 혹은 남녀갈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들의 주요 연관어를 클라우드 형태로 찾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키워드는 사건으로는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과 미러링,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018년 이수역 남녀폭행사건, 2018년 홍대 남성 누드모델 촬영과 이에 대한 혜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2019년 대림동 여경 사건이었다. 이에 2021년 한 해동안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기사 가운데 젠더갈등(남녀갈등, 각 띄어쓰기 포함)과 강남역, 미러링, 이수역, 혜화역, 여경이 포함된 기사를 검색하였다.

젠더갈등과 연관된 이슈로는 여가부 폐지, 남성 역차별, 군대(징병제), 혐오를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젠더갈등 논쟁이 본격화된 보궐선거를 추가하여 2021년 세 언론사의 기사 가운데 여가부, 역차별, 군대, 혐오, 보궐선거와 젠더갈등(남녀갈등, 각 띄어쓰기 포함)이 포함된 기사를 각각 검색하였다.

위에 선정한 사건과 이슈의 키워드를 젠더갈등과 남녀갈등을 포함해 검색한 결과, 사건별로는 강남역 17개, 이수역 11개, 혜화역 3개, 미러링 4개, 여경 19개가 검색되었고 이슈별로는 여가부 70개, 역차별 49개, 군대 54개, 혐오 129개, 보궐선거 27개가 검색되었다. 이 가운데 많은 수의 기사가 중복되었으며 단신 보도(예를 들어 2018년 발생한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사건의 대법원 판결기사, GS25의 남혐 손동작 논란 포스터 제작 관계자 징계 단신보도), 젠더갈등이 기사의 중심이 아닌 여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단편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의 보도(예를 들어 이준석 국민의 힘 신임대표를 소개하면서 그의 정치적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젠더갈등을 단순 언급하는 보도,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하면서 '젠더갈등 해소'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선언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통일부 폐지에 대한 주장에 '젠더갈등 해결 못하는 여가부 폐지'가 단순 추가 언급되는 경우,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징병제'라거나 '현재 한국사회에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등의 선언적 문구가 단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특정한 논평 없이 인터넷 댓글을 모아 소개하는 정기코너(중앙일보의 e글중심), 징병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나열하거나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하며 그 가운데 하나로 '젠더갈등 해소'를 단순 포함하는 기사등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126개의 기사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각 언론사별 기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2021년 언론사별 젠더갈등 기사의 수

	조선	동아	중앙
2021년 젠더갈등 기사 수	48	20	58
총계 126개			

분석에서 탐구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보수언론(조선, 동아, 중앙)은 젠더갈등을 생산/확장하는 주체로 누구(개인, 집단)를 호명하는가? 또한 이 유형의 기사에서 지목되는 젠더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유형의 기사는 객관적 관찰자 입장에서 젠더관련 이슈에서 특정 의견을 가진 주체①과 주체②에 맞서 다른 의견을 보이며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②의 주장을 동시에 보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사에서 호명되는 젠더갈등의 생산과 주체는 누구(개인/집단)인지를 언론사 별로 분석해 비교하며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기사에서 호명되는 젠더갈등 생산 주체①의 어떠한 발언이나 행위가 주체 ②의 반발과 비

판을 불러오며 젠더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제시되는가를 살펴본다.

2)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보도에서 젠더갈등을 고발, 비판,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로 소개되는 이른바 담론 elite는 누구이며 이들이 젠더갈등의 생산주체로 지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또한 이 유형의 기사에서 지목되는 젠더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 유형과 2) 유형 기사의 차이점은 1) 유형의 기사가 객관적 관찰자 입장에서 젠더갈등 현상을 보도하며 갈등의 대립되는 양쪽을 지목하는 것이라면, 2번 기사 유형은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개인/단체를 특정해 지목하며 비판하는 특정인/집단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형식이다. 2) 유형 기사의 외형적 특징은 젠더갈등을 야기하는 주체를 지목하며 비판하는 담론 elite의 이름이 분명히 제시되며 그/그들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소개된다는 점이다. 젠더갈등 생산의 주체로 지목된 대상의 반박이 소개되어 1)유형과 구분이 고민되는 기사의 경우, 젠더갈등을 생산하는 주체를 지목하고 비판하는 담론 elite의 주장이 기사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마지막에 한두줄 정도의 반박 입장이 형식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따로 구분할만큼 수가 많지 않아 따로 기명칼럼, 언론사 사설도 내용에 따라 (2) 유형의 기사에 포함하였다.

3) 갈등현상의 증계에 집중하는 기사(유형 1)과 2))와 비교해 젠더갈등의 배경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젠더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또한 젠더갈등의 증계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가?

1)과 2) 유형의 기사가 젠더갈등을 고발하거나 젠더 이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대립과 갈등을 보이는 주체들과 갈등현장에 대한 증계라면 3) 유형은 젠더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선행연구들은 젠더갈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젠더갈등이 생겨난 사회적 맥락과 역사성을 생략하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젠더 갈등의 현장과 상황을 증계하는 보도방식을 지목해왔다. 이에 젠더 갈등에 대한 보도에서 보수언론들은 갈등의 현상 증계와 대안제시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다루고 있는지를 구분해 비교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가 젠더갈등의 이슈로 제시되는 경우,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인의 발언이나 인터넷 댓글들을 소개한 경우는 갈등의 증계로, 여가부 폐지 논쟁의 배경이나 폐지 주장에 대한 여가부의 구체적인 반론 소개, 여가부가 성평등에 기여한 내용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여가부의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기사 등은 대안을 다루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유형 별 언론사 기사 리스트

1) 동아일보

(1) 보수언론은 젠더갈등을 생산/확장하는 주체로 누구(개인, 집단)를 호명하며 언론이 지목하는 젠더갈등의 구체적 내용, 아젠다는 무엇인가?

〈표 2〉 (1) 유형에 해당하는 동아일보 기사

영역	갈등주체①	갈등주체②	갈등내용	날짜
정치권	이준석	나경원	이준석이 이대남의 분노를 토대로 젠더갈등을 일으키며 유명해졌다VS 이에 대한 반박	6/1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여성할당제 폐지(남성역차별) 주장VS 이에 대한 비판	6/3
	홍익표	이준석, 하태경	이준석의 극우정치, 반페미니즘, 극우 포퓰리즘 비판 VS 이에 대한 반박	6/2
	하태경	여가부 김경선 차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여가부의 무능과 관리감독 부실VS 젠더갈등 양산하는 혐오정치 비판	7/9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국민의 힘 (양준우 대변인)	안산 선수의 남혐 단어 사용 전력 지적하며 일부 누리꾼의 안산 선수 공격이 근거있음을 주장하는 양준우에 대한 비판VS 양준우 반박	8/2
	이준석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여경 채용 시험 기준 강화VS 데이트 폭력 비판	11/23
	윤석열 후보	하태경, 이준석	신지에 영입으로 정권교체 도움VS젠더갈등을 가볍게 바라본다는 비판	12/21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전문가, 다수의 교수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퇴근한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이기적 여성(전업주부)때문에 남성이 피해분다는 주장(남초 사이트)VS이를 젠더갈등 부각으로 비판하는 전문가들	10/27
총계 8개				

(2)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보도에서 젠더갈등을 고발, 비판,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로 호명되는 이른바 담론 elite는 누구이며 이들이 젠더갈등의 생산주체로 지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표 3〉 (2) 유형에 해당하는 동아일보 기사

지목대상	젠더갈등을 만드는 주체를 지목, 비판하는 개인/집단	담론 elite에 의해 젠더갈등 생산하는 존재로 지목된 개인/집단	젠더갈등 내용	날짜
여가부	유승민, 하태경	여가부	여가부 무능, 여가부 장관의 정치적 임명, 여가부 자체가 젠더갈등 부추임	7/7
	조수진(국민의 힘 최고위원)	여가부/여성할당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부처/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갈등을 야기	7/7
	하태경	여가부, 여가부 배후의 극단적 운동권 페미니스트	여가부가 젠더갈등 조장 ¹¹⁾	7/10
	이준석	여가부	여가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 심해져	7/10
	이준석	여가부	젠더갈등 해결에 역할 못함	7/12
정치권 / 인터넷	정치부 기자(유성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대남에 집중한 공약(여가부개편, 성범죄무고죄처벌강화)으로 젠더갈등 키우기	11/13
	정치부장(길진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2030 남성표심을 공략하는 반페미니즘 공약으로 젠더갈등 키우기	11/20
	동아일보 사설(언론사)	일부 누리꾼, 양준우 대변인, 국민의 힘	안산 선수를 남혐 용어 사용자로 공격하는 일부 커뮤니티 내부의 논쟁거리를 키워 젠더갈등 부추임	8/3
기업	온라인 커뮤니티, MZ세대 누리꾼 ¹²⁾	GS25, MLB(캐주얼브랜드), 무신사	여혐, 남혐 이미지나 광고문구를 사용하거나 여성고객에게만 쿠폰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젠더갈등 야기	5/5
총계 9개				

- 11) 해당 기사는 여가부가 조장한 젠더갈등 사례 5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하태경 의원의 페이스북 발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1) 여가부가 만든 아이돌 외모 규제 가이드라인 논란, 2)초중고 생에게 '김치녀는 혐오지만 김치남은 혐오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라는 여가부, 3)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왜곡, 4)레이디퍼스트 유래 왜곡, 5)'남성은 잠재적인 성범죄자'라는 양평원장 발언
- 12) 유통업계 '젠더-공정성'리스트 초긴강(5.3)의 기사를 1)과 2) 유형, 어느 곳에 포함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기사의 내용은 GS25, 무신사, 이마트24, MLB등에서 남혐, 여혐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와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젠더와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MZ 세대들이 젠더갈등을 야기한다는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를 2)유형에 포함한 이유는 기사 전반에 걸쳐 기업들이 특정 커뮤니티나 MZ 세대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젠더갈등 가능성에 대항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미지를 바꾸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 의견(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일부 누리꾼의 젠더갈등 문제제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진화하는 감수성에 맞추어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특정 이미지나 광고문구가 젠더갈등을 야기한다는 특정 커뮤니티와 누리꾼의 주장을 긍정하고 있어 2) 유형으로 구분했음을 밝힌다.

동아일보의 경우, 갈등중계에 해당하는 1),2) 유형의 기사가 20개 가운데 17개로 압도적 양적 우세를 보인다. 젠더갈등 논쟁이 벌어지는 영역은 주로 정치권(8개 중 7개)이며 인터넷 남초 사이트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1건이다. 2)유형에서 특정 주체에게 젠더갈등 유발 책임을 묻는 인물들 가운데 정치인이 9명 가운데 5명, 언론사(기자 칼럼, 사설)자신이 3건, 인터넷 커뮤니티와 네티즌이 1건이다.

1유형과 2유형을 합해 젠더갈등을 생산하는 주체로 지목받으며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가부(여성단체)와 극단적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이 17건 가운데 6건으로 1/3 정도를 차지한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¹³⁾와 하태경, 유승민 의원은 특정 대상(여가부, 여성단체, 페미니즘)에게 젠더갈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담론 엘리트로서의 발언권을 갖는 동시에 논쟁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로 언론에 등장한다. 1)유형의 기사 8개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와 여성할당제 등 국가 페미니즘 부서와 정책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젠더갈등 논쟁을 불러오는 주체 ①로 등장하며 특히 보궐선거 이후 자신의 정치적 주요 아젠다로 ‘역차별 받는 이대남’과 ‘이대남을 차별하는 여성우대 정책 비판’의 대립구도를 설정해온 이준석 대표는 다른 주체들(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진중권 교수)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타 주체들의 페미니즘 정책에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주체②)하며 언론보도에 등장한다. 총 8개의 기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하태경 의원은 주체 ①로 4번, 주체②로 2번, 총 6번개의 기사에 등장하며 젠더갈등 담론을 주도한다.

동아일보의 젠더갈등 중계 기사 가운데 타 언론사가 보도하지 않은 동아일보만의 기사는 “나도 풍풍남이었다“..남초 강타한 ‘설거지론’이 뭐기에(10/27)’의 기사이다. 이 기사는 연애경험이 적은 순진한 남성이 결혼 전 문란하게 지낸 여성과 결혼해 제대로 된 남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남초 커뮤니티의 주장을 소개한다. 또한 전업주부 아내가 퇴근한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키면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집안 일을 떠맡는 ‘풍풍남’의 사연을 자세히 소개한다. 기사는 마무리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해당 커뮤니티의 이슈에 대해 ‘지질하다’며 코멘트를 거절했으며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녀갈등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덧붙인다.

(3) 갈등현상의 중계가 아닌 갈등의 배경, 대안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젠더갈등의 중계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가?

13) 이준석 현 국민의 힘 당 대표는 2021년 6월 11일 당 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선거일 이전의 기사에서는 선거 후보의 신분으로 기사화되었으나 논문이 쓰여지는 2022년 4월 현재 시점에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호칭을 당대표로 통일한다.

〈표 4〉 (3) 유형에 해당하는 동아일보 기사

기사제목	날짜
[수요논점/황인찬] 인구 절벽으로 병력 수급 위기.. '징병제 대안 논의할 때'	5/12
스무살 여가부의 흑독한 성인식[박성민의 더블케어]	7/10
"여가부, '국민입상' 전략.. 부총리급 격상해야"	8/2
총계 3개	

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인구절벽으로 병력 수급위기'는 황인찬 논설위원의 칼럼으로 징병제의 대안으로서 안보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모병제의 현실적인 장단점을 살피고 한국상황에 적합한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스무 살 여가부의 흑독한 성인식' 기사는 야당 대선 주자들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응해 이복실 전 여가부 차관을 인터뷰하는 내용이다. 인터뷰 내용은 한국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야당의 여성할당제 폐지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과 주어진 역할을 하기 위한 여가부의 실효성 있는 조직 개편안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여가부 "국민입상" 전략'의 기사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인터뷰 기사로 젠더갈등을 생산하는 주체로 여가부를 지목하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기사와 차별화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여가부의 조직 재편 방안을 제시하며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다.

2) 조선일보

- (1) 보수언론은 젠더갈등을 생산/확장하는 주체로 누구(개인, 집단)를 호명하며 언론이 지목하는 젠더갈등의 구체적 내용, 아젠다는 무엇인가?

〈표 5〉 (1) 유형에 해당하는 조선일보 기사

영역	갈등주체①	갈등주체②	갈등내용	날짜
정치권	박용진	일부 여성단체	징병제 폐지와 남녀평등복무제 VS 남녀갈등 야기	4.19
	이대남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일부 반대 여성의원	군복무자예우법, 남녀평등복무제등 제안 VS 젠더갈등 부추이는 법안 반대	4.27
	이준석	진중권	민주당의 젠더갈등 유발정책 비판VS 정치선동 반대	5.3
	이준석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인사, 30대 여성 직장인	할당제 폐지, 워마드 비판(이준석),젠더갈등 유발	5.29
	유승민, 하태경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윤지선 교수	여가부(장관)의 무능과 문제적 발언, 젠더갈등 부추임을 이유로 여가부 폐지VS 남성주의적 정치반대	7.7
	진중권	이준석	양준우 대변인 발언 여성혐오 비판 VS 근거없다	8.1
	(메갈리아의 미러링에 반발하는)남초커뮤니티, 일부 네티즌, 양준우 국힘 대변인,	진중권, 장혜영, 함인희 교수	안산 선수 남혐VS근거없는 주장 중단	8.2
	장혜영, 진중권	이준석	교제살인 비판 VS 남성은 가해자 프레임으로 젠더갈등 유발VS 이준석 발언 비판	11.21
	국민의 힘 선대위	하태경	신지에 영입 VS 젠더갈등 격화하는 페미니스트 신지에 영입반대	12.20
	하태경, 이준석	윤석열 김한길	급진 페미니스트 신지에 영입으로 젠더갈등 고조 VS 그렇지 않음	12.21
인터넷 (국민청원)	나윤경 양평원장	남성 커뮤니티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동영상 제작VS여가부가 남녀갈등을 조정한다는 비판	4.15
	급진 페미니즘 메갈리아(남혐 이미지 사용 기업)	남초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남혐 이미지(이를 사용하는 기업) VS 남혐 이미지 사용 비판	5.4
	남초 커뮤니티	메갈리아	남초 커뮤니티의 숨은 메갈 찾기 VS 메갈리아의 남혐 이미지와 언어(이를 사용하는 기업)	5.22
	문피아 남성회원	문피아 여성회원	성애적 여성캐릭터 이미지 수정에 대한 비판V남성회원 비판에 사과하는 문피아 비판	6.24
	여성징집 청원자 A	소년병 청원자 B	성평등을 위한 여성징집 제안VS 여성에게 군역의 의무 지우는 대신 남성 소년병징집	4.23
	여성징병제 찬성 남성	반대 여성	성평등 주장하려면 여성도 군대가야 VS 여성징집으로 성평등 이루어지지않음	4.24
	여가부 존치, 권한 강화 청원	여가부 폐지 청원	여가부가 제 역할 수행하기 위해 권한 강화해야 VS 젠더갈등 조장하는 여가부 해체	7.11
	여가부 폐지 청원	여가부 존치, 권한 강화 청원	젠더갈등 조장하는 여가부 해체VS 여가부가 제 역할 수행하기 위해 권한 강화해야	8.17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청 관계자, 오윤성 교수, 광대경 교수	여경이 근무시간에 운전연습하며 세금낭비 VS 경찰의 정상적 근무활동이며 소비적 여성혐오	9.16

기 타	여학생 우대에 익숙한 교사	역차별 느끼는 10대 남학생	체육시간 환복, 여학생 운동점수 가점 VS 남학생 역차별 주장	5.1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선옥 작가	여가부 고유 역할 있어 VS 여가부의 페미니즘이 젠더갈등 유발	7.14
총계 21개				

(2)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보도에서 젠더갈등을 고발, 비판,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로 호명되는 이른바 담론 elite는 누구이며 이들이 젠더갈등의 생산주체로 지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표 6〉 (2) 유형에 해당하는 조선일보 기사

지목 대상	젠더갈등을 만드는 주체를 지목, 비판하는 개인/집단	담론 elite에 의해 젠더갈등 생산하는 존재로 지목된 개인/집단	젠더갈등 내용	날짜
징병제	박용진	남성만 군대가는 현행 징병제	현행 징병제의 남녀차별 논란 없애기 위한 남녀평등 복무제 제안	4.19
	박용진	남성만 군대가는 현행 징병제	현행 남녀갈등, 군필 남성중심의 사회로 인한 또 다른 갈등 해결하는 남녀평등복무제 제안	5.1
여가부(산하단체)/페미니스트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여가부	여가부는 젠더갈등조정부(하태경)/여성을 절대소수자로 전제(이준석)/여가부 업무 타부처로 이관하고 중복예산은 군필청년지원(유승민)	7.7
	하태경	여가부(젠더갈등 부축이는 탈레반 여성우월주의자들, 급진적인 분들)	성차별이 없는데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여가부 폐지	7.8
	하태경	여가부	여가부가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면 젠더갈등 양산	7.8
	하태경	여가부, 탈레반 여성우월주의자들, 급진적인 분들	여가부의 구체적인 젠더갈등 조장 사례 제시 ¹⁴⁾	7.10
	하태경	여가부	기득권, 정치적, 당파적으로 변한 여가부가 젠더갈등 조장	7.16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	여가부, 양성평등진흥원	페미관점에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여가부가 젠더갈등 조장	10.19

14) 동아일보와 같은 하태경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 보도

정치인/ 정치권	진중권	이준석	민주당의 패배원인을 젠더갈등 부 족인 것으로 규정한 이준석을 안티 페미니즘, 포퓰리즘으로 비판	5.3
	김윤덕(주말뉴스부장)	이준석	여성할당제 폐지	7.5
	이낙연	여가부 폐지 주장하는 이준석, 유승민	여가부 폐지는 여성혐오적 포퓰리즘	7.7
	한국여성정치네트워 크, 사이버성폭력대응 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여가부 폐지주장은 혐오정치	7.9
	류호정	하태경, 박용진	여성군복무 공약으로 젠더갈등 부 족여	7.22
	진중권	안산선수 논란 키우는 정치권	안산선수가 남혐인가를 놓고 싸우 다가 헤어진 연인 사연 공개	8.12
	이준석	장혜영, 정의당	안산선수에게 남혐발언의 책임을 묻는 양진우 대변인의 발언을 여혐 으로 공격하며 나(이준석)에게 입 장표명을 요구하는 프레임은 잡은 정의당이 젠더갈등 심화	8.2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한다'는 글을 공유하고 여가부 기능 축소 주 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반페미니즘 행보' 비판	11.12
	심상정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반페미니즘으로 2030의 좌절을 성적갈등으로 치환하고 부 족임	11.19
특정 커뮤 니티 사이 트/인터넷	진중권	일베와 메갈	GS25의 포스터와 남혐논란	5.6
	이준석, 하태경	알페스 생산하는 여성 온라인 성범죄자, 남성 음란물 합성하 는 워마드	남성의 성적 대상화	1.19
	변희원 기자	문제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특 정 커뮤니티와 이를 사용했다 고 불매운동하는 일부 소비자	젠더갈등을 만드는 특정 커뮤니티와 일부 소비자들에 의해 기업이 피해	6.1
기타	남성 네티즌	숫컷하고 남성혐오 표현 사용 한 치어리더 하지원	페미니스트로 지목당한 하지원의 '저는 페미와 무관, 젠더갈등 조장 하는 페미니스트 혐오'한다는 자기 방어	8.21
총계 21개				

조선일보의 경우, 갈등중계에 해당하는 1,2 유형의 기사가 48개 가운데 42개로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양적 우세를 보인다. 젠더갈등 논쟁이 벌어지는 영역은 정치권(21개 가운데 10개)과 인터넷

(21개 가운데 9개)으로 양분된다. 인터넷의 경우, 여성징병제/소년병 징병제 청원, 여가부 강화/폐지 청원이 대립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건, GS25의 '남혐 손가락 이미지 사용'을 둘러싼 대립이 2건, 그 외 나윤경 양평원장의 동영상, 문피아의 여성 캐릭터 이미지, 여경 운전연습이 촉발한 젠더갈등 대립이 1건씩이다. 남초 커뮤니티는 갈등 주체 ①, 또는 ②로 4차례 등장한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젠더갈등 기사 10개의 이슈는 군복무자 예우, 양성평등징병제 등 군대관련 이슈가 2건, 안산 선수에 대한 남초사이트 공격의 책임이 안산 선수의 남혐 발언에 있다는 국민의 힘 양준우 대변인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2건, 여가부 폐지 1건, 젠더관련 이슈에 대한 특정 정치인(이준석, 하태경, 유승민)이 개입한 정치적 공방을 다룬 기사가 5건이다.

2) 유형의 21개 기사에서 특정 주체에게 젠더갈등 유발 책임을 묻는 인물들은 정치인이 13명, 진중권 전 동아대 교수가 3건, 언론사 2건(기자 기명칼럼)이며 여성단체, 남초 커뮤니티, 남성 유튜버가 각 1건씩이다. 2) 유형의 기사에서 젠더갈등 유발의 책임자로 지목된 대상으로 여가부(산하단체)/급진 페미니스트가 6건, 솟갯을 해서 페미니스트라는 오해를 불러온 치어리더 하지원이 지목된다.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와 하태경, 유승민 의원은 특정 대상(여가부, 여성단체, 페미니즘)에게 젠더갈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담론 엘리트로서의 발언권을 갖는 동시에 논쟁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로 언론에 등장한다. 1) 유형의 기사 4건에서 이준석 대표와 하태경, 유승민의원은 여가부와 여성할당제 등 국가 페미니즘 부서와 정책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젠더갈등 논쟁을 불러오는 주체 ①로 등장하며 다른 주체들(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진중권 교수)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타 주체들의 페미니즘 정책에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주체②)하며 언론보도에 3번 등장한다. 2) 유형의 기사에서는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주체를 지목하는 입장으로 7건, 젠더갈등 유발의 주체로 지목되며 5번 등장한다. 총 42개의 기사 중 가운데 19건의 기사에서 젠더갈등 담론의 대립자로, 젠더갈등 유발의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추궁당하는 다양한 위치로 등장한다. 진중권 전 동아대 교수 역시 이준석 대표의 갈등구도를 통해 7건의 기사에 이름을 올리며 젠더갈등 담론을 주도한다.

타 언론사는 보도하지 않은 조선일보만의 젠더갈등 중계 기사로는 '하지원 머릿결 상해 솟갯했는데 악플.. 정치권서도 "탈레반이나" 비판'(8.21)과 문피아 남녀 회원 대립(6.24), 초, 중, 고 교실에서 여학생을 우대하는 관행(체육시험 점수 추가, 체육복 교실 환복)에 무감한 교사들이 남학생들의 성차별 비판에 직면한다는 내용(5.1) 기사를 들 수 있다.

하지원 기사의 경우, 남성 네티즌이 솟갯트를 한 하지원을 향해 '페미니스트'라고 비판하자 하지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페미가 아님을 방어하며 사과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나는 페미와 무관하며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페미니스트를 혐오'하고 '제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솟갯트를 한 것을 사과하는 하지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다. 하지원에게 페미니스트라며 악플을 다는 네티즌을 '여자들이 히잡을 안쓰면 썩버리는 극렬 무슬림'에 비유하며 비판하는 이한상 교수(국민의 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캠프 소속)의 코멘트를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기사의 2/3에 가까운 분량은 페미

니스트로 공격하는 네티즌을 향해 자신이 페미가 아님을 변호하는 하지원의 발언에 할애한다.

- (3) 갈등현상의 중계가 아닌 갈등의 배경, 대안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젠더갈등의 중계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가?

〈표 7〉 (3) 유형에 해당하는 조선일보 기사

기사제목	날짜
[조선칼럼] '꼴페미' 서민교수는 어쩌다 '반페미'가 되었나	12.3
[밀레니얼 톡] 여경논란과 젠더갈등, 그 밑바닥에 있는 것	11.22
[아무튼 주말] 논란의 여성징집제 미래 군대의 모습은?	5.1
[아무튼 주말] '이대남'에 목매는 후보들. 2030 여성 '속내' 들어보니	11.20
[아무튼 주말] 대선정국에 불붙은 여가부 폐지논란	7.17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여성징병제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까?	4.27
총계 6개	

젠더갈등의 배경 설명과 젠더갈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조선의 기사는 3개의 기명칼럼(김윤덕 주말뉴스부장, 임영목 대학원생-K를 생각한다 저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과 3개의 심층 기획기사([아무튼 주말])로 6개이다. 주제는 여성 징병제의 현실적 가능성과 국방의 미래, 여가부 폐지논란, 여경논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2030 남성/여성 갈라치기 전략에 대한 비판을 다룬다.

3) 중앙일보

- (1) 보수언론은 젠더갈등을 생산/확장하는 주체로 누구(개인, 집단)를 호명하며 언론이 지목하는 젠더갈등의 구체적 내용, 아젠다는 무엇인가?

〈표 8〉 (1)유형에 해당하는 중앙일보 기사

영역	갈등주체①	갈등주체②	갈등내용	날짜
정치권	이대남 정책 제안하는 민주당 초선의원들	반대입장	군가산점제, 군경력 인정 법안 제안 VS이에 대한 반대	4.16
	이대남 정책 제안하는 민주당 초선의원들	반대 의원들	군가산점제, 군경력 인정 법안 제안 VS 반대	4.23
	모병제, 여성징집 주장 (박용진, 권인숙, 시민)	반대	모병제, 남녀평등위한 여성징집제 필요 VS 반대	4.20
	이준석	진중권	민주당의 선거 패배는 페미니즘 탓	5.3
	이준석	진중권, 국민의 힘 반대 의원들	여성할당제 등 남성역차별하는 여성정책 폐지 주장 VS 반대	5.6
	이준석	진중권	이준석의 안티페미니즘 비판	5.9
	추미애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페미현상’ 반대 추미애 발언과 이에 대한 비판	6.29
	조수진, 윤희숙	유승민, 하태경	여가부 폐지 찬반	7.7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윤희숙, 원희룡	여가부 폐지 찬반	7.11
	이준석, 양준우(국힘대변인)	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캠프, 진중권	양대변인의 안산선수 ‘남혐발언’ 비판과 방어	8.1
인터넷 / 트위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남혐 이미지 사용한 GS 25	GS 25의 남혐 이미지 사용 논란 VS 사과	5.2
	나윤경 양평원장	반대 네티즌	좋은 남성임을 증명하라는 양평원장의 성인지 교육 동영상 VS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화한다는 비판	4.13
	서울시 여성권익 담당관	익명게시판의 항의 의견	서울시의 성평등 조직문화 생활수칙 전체 메시지 수신과 남성역차별 반발	6.2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비판	트위터의 반론	여자라서 뽑힌거다 VS 20대 여자라서 과도한 비판	6.24
	방통대 교양학부 수강생	담당 교수	교양수업 커리큘럼에 대한 ‘페미’ 문제제기	9.16
	전효성, 여가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	전효성의 데이트폭력 두려움 발언과 비판	10.29
총계 16 개				

(2)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보도에서 젠더갈등을 고발, 비판,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로 호명되는 이른바 담론 elite는 누구이며 이들이 젠더갈등의 생산주체로 지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표 9〉 (2) 유형에 해당하는 중앙일보 기사

지목대상	젠더갈등을 만드는 주체를 지목, 비판하는 개인/집단	담론 elite에 의해 젠더 갈등 생산하는 존재로 지목된 개인/집단	젠더갈등 내용	날짜
여가부/ 유관단체/ 여성계/ 극단적 페미니즘	오세라비	K - 페미니즘	586 운동권세력, 여성단체연합과 결탁된 기득권 페미니즘	1.22
	유승민, 하태경	여가부	비효율적 여가부 대신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유승민), 여가부는 젠더갈등조장부(하태경)	7.6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여가부	비효율적 여가부 대신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유승민), 여가부는 젠더갈등조장부(하태경)	7.11
	정영애 여가부장관	양평원의 교육용 동영상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하는 여성 프레임	4.14
	하태경	극단적 페미와 결별하지 않는 여성계	위마드 등 극단적 페미와 선을 안 곳은 여가부와 여성단체가 젠더갈등 부추여	5.25
	이준석	극단적 페미니즘과 이를 방치한 국내정치	젊은 여성은 피해자, 젊은 남성은 가해자로 극단적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정책 수행한 국내정치	4.12
	이준석	진중권	시대착오적 여성할당제, 급진적 페미니스트	5.2
정치인/ 정치권	진중권	이준석	남녀갈등 조장하는 안티페미니즘 정치	5.2
	진중권	이준석	이준석의 '안티 페미니즘' 비판	5.3
	진중권	이준석	젠더갈등을 내포한 이준석 현상과 능력주의	6.24
	진중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국내정치	이대남에 집중하며 젠더갈등 조장하는 혐오의 정치	4.17
	양성희[양성희의 시사각각]	남초 사이트, 정치권	페미니즘=남혐 주장하며 페미니즘 사상검증 벌이는 남초 사이트, 이대남에 구애하며 성대립 부추인 정치권	5.26
	NewYork Times,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 댓글, 이준석	안산선수에 대한 페미니스트=남성혐오자 주장, 성차별 주장하는 이준석	7.31
	양성희[양성희의 시사각각]	남초 커뮤니티, 정치권	페미사상 검증하는 일부 남초 커뮤니티의 백래시와 이를 사회적 의제로 수용하는 정치권, 사회	8.4
	유튜버 크로커다일	저성장파 정치인	정치적 이익 위해 페미/반페미 갈등 양산하는 정치권	11.24
	20대 남녀들	혐오팔이하는 정치인등 기성세대	온라인상의 극단적 성별혐오를 이용하는 정치인	5.9
	하태경(이준석, 홍준표)	윤석열 선대위	젠더갈등 격화시키는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	12.20
하태경	선대위	강성페미, 젠더갈등 유발자 신지예 영입	12.21	
인터넷 커뮤니티	이지영 중앙일보 문화 팀장	여혐/남혐 커뮤니티의 용어와 동작	여혐/남혐 기호를 만들어내며 무고한 피해자(재제, 기업들)를 만들어내는 여초.남초 커뮤니티	5.26
기타	김민전	사회적 기회부족	기회부족으로 경쟁하는 이대남 이대녀의 학점, 취업불만	12.30
총계 21개				

중앙일보의 경우, 총 58개의 기사 가운데 갈등중계에 해당하는 기사는 38개, 젠더갈등의 배경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형의 기사가 21개로 조선과 동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배경 설명과 대안제시를 시도한다.

젠더갈등 논쟁이 벌어지는 영역은 정치권(16개 가운데 10개), 인터넷/트위터(16개 6개)로 정치권이 다소 양적 우세를 보인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젠더갈등 이슈는 군가산점제 부활, 군경력 인정정책, 남녀평등 징병제와 여가부 폐지 등의 정책(16건 중 6건)이 가장 많으며 안산선수에 대한 남초사이트의 공격이 안산 선수의 남혐 발언 때문이라는 국민의 힘 양준우 대변인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이준석의 안티페미니즘 정치행보에 대한 논란, 추미애 의원의 '페미현상' 반대 발언 등이다.

유형 1)의 기사에서 조선, 동아에 없는 중앙만의 중계갈등 보도기사는 서울시 여성권의 담당관 임명을 둘러싼 '여자라서 특혜'라는 공정성 논란과 '20대 여자라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비판받는다'는 반론(6.24),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페미' 커리큘럼 비판과 이에 대한 교수의 반론(9.16), 가수 전효성의 데이트폭력 반대 동영상과 남초 커뮤니티의 비판(10.29)등을 들 수 있다. 3개의 기사 모두 인터넷 남초 커뮤니티가 갈등 주체①과 ②로 등장하며 남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개인 발언과 댓글들이 소개된다.

2) 유형의 21개 기사에서 특정 주체에게 젠더갈등 유발 책임을 묻는 인물들은 정치인이 7명, 진중권 전 동아대 교수가 4건, 언론사(기자 기명칼럼) 3건이며 그 외 오세라비, 정영애 여가부장관, 뉴욕타임즈, 김민전 교수, 여성단체, 유튜버 크로커다일, 집단 인터뷰 기사에 등장한 '20대 남녀들'이 각 1건 씩이다.

2)유형의 기사에서 젠더갈등 유발의 책임자로 지목된 대상은 여가부(산하단체)/K-페미니즘/급진 페미니즘과 결별하지 않는 여성계 등 국가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여가부와 여성단체, 급진 페미니즘이 7건,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인과 국내정치가 11건, 그 외가 각 1건 씩이다. 9건의 정치인과 국내 정치 비판 기사는 보궐선거 승리 이후 남성 역차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민주당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을 비판하는 이준석 대표와 온라인의 혐오를 정치적 의제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정치권을 젠더갈등 유발의 책임자로 지목한다.

동아,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준석, 하태경, 유승민 등 특정 정치인들은 기사 유형 1)과 2)에 걸쳐 여가부와 여성활동단체 등 국가 페미니즘 부서와 정책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젠더갈등 논쟁을 불러오는 주체로 등장하며(4.12, 5.2, 5.3, 5.6, 5.25, 7.6, 7.11, 8.1) 동시에 다른 주체들(다른 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 여성단체, 언론(기자들), 진중권 전 동아대 교수)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된다(4.17, 5.2, 5.3, 5.9, 5.26, 6.24, 7.31, 8.4, 11.24). 진중권 전 동아대 교수 역시 이준석 대표와 갈등구도를 통해 6건의 기사에 이름을 올리며 젠더갈등 담론을 주도한다.

(3) 갈등현상의 중계가 아닌 갈등의 배경, 대안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젠더갈등의 중계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가?

〈표 10〉 (3) 유형에 해당하는 중앙일보 기사

	기사제목	날짜
역차별	[강혜련의 휴먼임팩트] 남성들이 모르는 여성의 열패감	5.8
	女 덜 일해 박봉? 문이 할당제 늘렸다? '팩트' 가장하는 혐오	7.22
세대/ 정치/ 온라인 혐오	[양성희의 시사각각]이남자(20대남자), 이여자(20대여자)	4.14
	[양성희의 페스펙티브] 이남자 잡기 혈안된 민주당의 위험한 선택인가	4.29
	[양성희의 퍼스펙티브]뒤틀린 밀린 이대녀 "우리는 대체 누구 뽑나요"	12.16
	[윤석만의 뉴스&체크]정쟁에 얼룩진 페미니즘,성평등과공존의의미 사라져	11.26
	뒤통에 간 '이남자' 차에 기운 '이여자', 文정부서 갈라진 20대	4.8
	'너 여시해?' 이말에 입닫는다.. 현실엔 '욕설전쟁'없는 이유	12.27
	편가른 정부, 힘 안겨준 이준석'..정치가 더 망친 젠더갈등	12.27
	'페미니즘에 경주마처럼 달려든다'2030이 말하는 여성,남혐	7.22
	"뭘 말인지 알아야 화나지" 그들만의 '허버허버' 젠더싸움	5.4
	이젠 남혐 경계령, 박나래, GS25 이어 '1박2일'난타당했다.	5.5
	'집게 손가락'에 더 혐악해진 젠더충돌, 단순 해프닝 아니다	5.11
	성평등 올림픽 흥행에 대한민국만 탄 세상?. 젠더갈등 속 올림픽 두 얼굴	8.2
'줄리 벽화'는 여당을 때렸고.. '안산 숏컷'은 야당 꾸짖었다	8.3	
여가부	이낙연, 이준석, 이철희도 가세,5년만에 또 '여가부 폐지'싸움	7.11
	[사설]폐지론 제기된 여성가족부, 존재의 이유 성찰해야	7.9
	[양성희의 시사각각] 여가부만 없으면	7.21
징병제	노르웨이선 왜 여성도 군대가나	5.7
	"젠더갈등으로만 치부말라" 징병제 논란에 모인 전문가 6인	5.11
	[서소문 포럼]출산율 1.8 아이슬란드의 비결	4.29
총계 21개		

중앙일보 해설 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이 점유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남성혐오, 여성혐오 발언들을 기사로 보도해 일반 대중에게 알리며 불필요한 젠더갈등을 키우는 언론보도와 정치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세대/정치/온라인 유형에 해당하는 기사 13개)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젠더갈등 중계 유형에서 보도된 특정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 GS25의 '남혐 이미지' 사용 사건의 경우, 1)유형의 '소시지 잡는 손가락'뒤통래.."남혐" 욕먹은 GS25 포스터'(5월2일)에서는 남혐을 주장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GS25의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GS25는 이에 사과하며 젠더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도한다. 이어 2) 유형의 '혐오 과민시대, 손가락도 괴롭다'(5.26)와 '[양성희의 시사각각]집게 손이 뒤통래'(5.26)의 기사에서는 남초 사이트가 제기하는 기업이나 연예인에 대한 '남혐'공격을 젠더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러한 1),2) 유형의 기사에 이어 3) 유형의 “뭘 말인지 알아야 화나지”..그들만의 “허버허버” 젠더싸움’(5.4), ‘이젠 남혐 경계령..박나래, GS25 이어 “1박2일” 난타당했다’(5.5), “집게 손가락”에 더 험악해진 젠더충돌, 단순 해프닝 아니다’(5.11)에서는 젠더갈등의 주축을 20대로 지목하며 세대갈등으로서 젠더갈등의 특징과 배경을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남혐논란을 반페미 정서를 기반으로 한 페미니즘 백래쉬로 정의하며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정서에 대한 설명(5.5), 젠더갈등의 사회적 배경으로 사회 초년생들에게 제한된 취업의 기회를 남성과 여성이 경쟁해 나누어야 하는 ‘파이썬개기’ 상황을 지목하고 20대의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소개하는 내용(5.11)의 기사이다. 또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화되는 젠더갈등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배타적 확증 현상의 결과이며 대다수의 중, 장년층 국민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들만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20대의 젠더갈등에 기성세대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 또한 강조(5.4) 된다.

6. 논의 및 결론

1) ‘누가’ 젠더갈등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2)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참고문헌

- 강정석 (2013).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의 부상. *문화과학*, 75, 273-302.
- 권김현영 (2019). 불평등 감각의 젠더차이:성차별 현실에 대한 부정과 인정. *《창작과 비평》*, 47(3), 35-53.
- 김강미·이지은·김연수 외 2명 (2019). 여혐-남혐 갈등: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2(3), 29-54.
- 김기동·전다빈·이재묵 (2021). 한국인의 젠더정체성과 젠더갈등. *《한국정치학회보》*, 55(4), 5-42.
- 김민정 (2021). “성평등 의식이 차이를 만듭니다”:온라인상의 성차별 혐오표현 사례별 인식조사. *《미디어, 젠더&문화》*, 36(1) 59-95.
- 김보명 (2019). 젠더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비교문화연구》*, 56, 1-25.
- 김수아 (2018). 젠더정치의 미디어프레임, 그 페미니즘. *황해문화*, 18-34.
- _____ (2019). 미투운동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난 성별갈등 보도분석. *《미디어와 인격권》*, 5(1),95-136.
- _____ (2021). 언론, 성평등 보도관점 바꿔야한다. *《관훈저널》*, 63(2). 57-63.
- 김학준 (2014).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해원·박동숙·이재원 외 3명 (2018). 5월 19일, 여성들은 혜화역에 어떻게 모였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의제화와 조직화 과정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6(4). 85-139.
- 류연규·김영미 (2019). 한국사회 젠더갈등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성별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131-160.
- 손희정 (2018). 혐오담론 7년. *《문화과학》*, 93, 20-49.
- 엄진 (2016).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1(2), 193-236.
- 오재호 (2021). 청년세대의 젠더갈등과 해소. *《월간 공공정책》*, 185, 56-59.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혐오. *《진보평론》*, 57, 33-56.
- 이선민·이상길 (2015). 세월호, 국가, 미디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월호 의견기사에 나타난 ‘국가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23권 4호, 5-66.
- 이수범·송민호 (2020). 디지털 성범죄 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4), 150-195.
- 이재명 (2013). 한국사회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저스티스》*, 134(2), 94-109.
- 정성조 (2019). 청년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39.
- 천관율·정한율 (2020). 20대 남자. (주)참언론 시사IN북

- 최이숙·장은미·김세은 (2020) 미투운동 이후 젠더 이슈 보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04, 122-163.
- 최종숙 (2020). '20대 남성현상' 다시 보기:20대와 3040 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89-224.
- 함승경·최지영·김영옥 (2019). 언어보도의 여성혐오 그리고 남성혐오 분석:언어 네트워크와 비판적 담론분석의 결합.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3(6), 24-51.
- 홍지아 (2017).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보도-4개 언론사(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 학보》, 83, 186-218
- Taylor, R. (2009). Slain and slandered a content analysis of the portrayal of femicide in crime news. *Homicide Studies*, 13(1). 21-49.

설문조사 및 보고서

- TAPACROSS (2019)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19 시대정신
여성가족부 청년의 생애 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전망 연구
- 강희영·최유정 (2019). <여성혐오 담론 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갈등 대응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 보고서
- 박보미 (2020) 30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제 7차 저출산인식조사 발표토론회> 발표문(pp 3-16). 청년세대의 행복은? 2030의 삶에서 해답찾기.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공동주최.
- 전효관 (2019). 청년정책, 새로운 좌표의 설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 토론회>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 세미나자료집 pp. 78-99.

젠더 갈라치기 구조에 나타난 남성다움과 정치

전해정(국민대)

현장배포

